

지역 매아리

한근호 부안부군수, 읍민의 날  
대동한마당 준비 현장점검

한근호 부안 부군수는 지난 24일 신운천 생태하천 및 부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 현장(600여원)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제1회 부안읍민의 날 대동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부안 지방정원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부안을 선운리·신운리 일원 신운천 생태하천 일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부안 지방정원 조성사업(150억원),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55억원), 부안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86억원), 병역소하천 정비사업(101억원), 선운소하천 정비사업(60억원), 재해위험지구(198억원)이며 2023년 제2회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이전인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근호 부군수는 현장점검에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안읍과 긴밀히 협조해 행사준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신운천 생태하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자살예방의 달 기념식 가져

고창군이 자살 예방의 달 기념식과 뮤지컬 공연을 열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자살예방의 달 기념식과 생명존중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김영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조민규·김미란 군의원, 4대 종교단체 대표, 자살수단·도구차단사업 관련인, 고창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자살예방 뮤지컬 배리콜드(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는 윤니버스 형식의 57지 에피소드를 통해 자살이라는 무겁고 슬픈 소재를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 풀어냈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사랑캠페인 양성교육, 자살 예방교육 및 스킵링,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10일로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늘어나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임소연 센터장은 "고창군의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의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을 정취 느끼며 인생샷 한방!

내달 5일부터 16일간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최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트레킹·공연 등 다채

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화려한 꽃 축제가 열린다.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제14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10월 5일(토) 오후 4시부터 가수 변진섭과 김창완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예년과 달리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구절초의 개화 기간을 최대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다. 또한, 특정 휴일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축제현장의 혼잡도를 줄여 한층 여유롭고 서정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축제는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다. 저마다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 촬영한 일명 '인생샷'을 무료로 인화해 제공함으로써 정읍방문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 소나무 그늘 아래 구절초 꽃 옆에 누워 풍경감상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구절초 숲 꽃집'과 재미있는 꽃길 산책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타갈 수 있는 '구절초 꽃길 트레킹'을 구성했다.

꽃길 언덕에 대형 '꽃 드레스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구절초 사진 공모전' 등 구절초 꽃길을 걷는 도중 소소한 즐거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는 문화공연도 한층 다양하게 준비했다. 축제장 중앙에 위치한 광장에서는 휴일 6일간 '국악을 사랑한 비보이', '색소폰 콜라보레이션', '재즈 앙상블', '줄타기 공연' 등 관광객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기 위한 '꽃길 퍼레이드'와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을 위한 '별별 서커스 공연', '코스모스 꽃 열차', '구절초 페이스페인팅'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음식 장터로는 정읍 특산물 단품미인한우와 약초 비빔밥, 구절초를 이용한 고추장, 발효주, 생화차 등 특화된 음식과 먹거리를 선보인다.

구절초 풍나물과 단품미인쌀 등 농특산물 장터에서 구매한 물품은 판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무료 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더 한다.

이외에도 2019 유색벽 야트경관, '구절초 러브스토리 길', '여기서는 꼭 사진 한 컷', '사랑의 우체통', '구절초 족욕체험' 등 구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올해부터는 축제장 공식 개장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해 매표시간을 작년보다 1시간 앞당겼다.

이른 아침의 물안개와 어우러진 구절초 풍경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오는 관광객과 늦은 오후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작년 12월에 개통된 '구절초 터널'로 교통상황도 한층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진입도로를 임시 일방통행화해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축제는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거리 등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정읍 구절초 꽃축제 방문으로 가을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맘껏 담아가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중국 운남성 청소년교류사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운남성과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사업에는 중국 운남성 운남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초등학생 및 인솔자 16명과 부안초등학교 초등학생 7명 등 총23명이 참여한다.

운남사범대학부설초 초등학생들은 K-pop댄스 및 태권도 체험, 모항갯벌 체험, 격포항 유람선 체험, 변산해수찜 체험 등을 했으며 부안초등학교 교실에서 동급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국학생들은 부안초등학교 친구들의 집에서 1박 2일 홈스테이를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중국 운남성 청소년교류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안군 청소년들이 중국 운남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교류사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중국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중국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안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부안의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후보 3건 선호도 조사

수박, 복분자, 멜론 등 고창군 농특산품을 대표할 이름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최종 후보 3건(높을고창, 고창담은, 고창만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가 오는 10월4일까지 진행된다.

'높을고창'은 '높을고(高)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한반도의 첫 수도의 위상과 고창군 우수 농특산품의 높은 품질을 나타낸다.

'고창담은'은 고창 농특산물 어디에 붙여도 좋을 활용성과 타 지역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고창만사'는 고창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란 뜻과 '고창만사'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 이름이다.

온라인 선호도조사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와 네이버 오픈스 품을 활용한 링크주소를 다양한 사이트에 게시해 고창뿐만 아니라 네이밍에 관심 있는 타지역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에선 군청, 시외버스터미널, 모양성제, 세종시청, 세종시 호수공원 등 전국각지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8일 통합브랜드 추진위원 등 13명이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후보로 3건을 결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통합브랜드 개발로 소비자들이 고창에서 나온 것이라면 믿고 살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가겠다"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첨단 행복주택 입주 관련 LH 방문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달라"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25일 LH 전북지역본부 방문했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200만 명만 신청되어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채지 중'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는 행

복주택의 담보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고 실 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읍 첨단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 쓸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평통 고창군협의회 출범... 신임 김기동 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 고창군협의회(회장 김기동)는 25일 오전 11시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19기 전북고창군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전북 고창군협의회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김기동 협의회장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동번영,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민주평통 고창군협의회 30명의 자문위원 중 15명(38.4%)이 여성위원으로 위촉 됐다. 여성위원 비율은 18기 29.2%에서 대폭 늘어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위한 여성과 청년의 역할 강화를 추진된다.

대행기관장인 유기상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고창군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제19기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과 고창군의회 의원, 김민기 전북도의회 의원도 참석해 민주평통 19기 출범을 축하했다.

제19기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건의를 성실히 수행하고, 통일외교를 대변할 국내·해외 대표급 인사 1만8000여명을 위촉했다. 고창군협의회는 지역위원, 직능위원 총 30명이 위촉되어 2년간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곰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